



濁流清論

제18호 2012년 4월 4일(수)

발행인 : 강경구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lisani@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과 시장의 관계	1
ACE 사업 특집	4
아주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ACE) 계획의 개요	4
학부교육선진화사업 - 고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5
에이스 사업 전공 부문, 어떻게 진행되나?	6
아주대학교 교양교육 - '茶山교양교육'	7
ACE 사업 비교과 영역 소개	8
고수들의 직업병 : 상지부위의 문제	12
: 컴퓨터 시각 증후군 (computer vision syndrome)	13
소식	15
소통과 답변	16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기획 연재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과 시장의 관계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최희갑

대학인가 시장인가

시장에서 대학으로 온 지 8년이 되어간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세상을 알기 위해 보냈던 기업에서의 10년 생활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이다. 학위 받기까지의 긴 시간을 더하면 대학에서의 생활이 더 길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에 대한 무지는 깊어만 간다. 하지만 요지경으로만 느껴졌던 시장과 기업의 행태는 갈수록 명료해 진다. 역설이다. 이것이 끝은 아닌 듯싶다. 익숙했던 시장과 기업의 행태를 대학에서 더 자주 마주친다. 내가 수년 전에 만났던 그들을 대학의 교정에서 마주하고 있다. 반면 시장과 기업은 갈수록 대학처럼 변해가고 있다. 내가 만나려 했던 그들을 시장에서 만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설이다. 이런 저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대학에서 이런 역사는 꽤나 된 듯 싶다. 필자가 처한 역설적 상황이 필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과 시장의 관계'는 그래서 따질만한 것이다.

☞ 2페이지에 계속

기억상실증에 도움이 되는 과거의 편린을 찾아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 중의 하나가 기억상실증이다. 영화대로라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보려 무척이나 노력한다. 과거의 편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대학과 시장 간의 관계의 중심에 자기정체성과 기억상실증이 놓여있기에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역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위키피디아의 'University' 그리고 e-Book의 편리함을 새삼 느끼면서 '대학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진 두 권의 책(이석우, 크리스토프 샤를)을 찾아 대학의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대학은 중세에서 도시와 길드 조합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학생과 교사들의 길드 조합이었다. 다른 길드처럼 대학은 구성원이 스스로를 규율 하는 자율 규제단체로 회원자격을 결정했고 학위를 수여한다는 의미에서 고대교육기관과 구별되며 자유로운 여행, 즉 학문의 자유라는 특권을 가졌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대학의 DNA일 것이다. 이후의 대학은 서구 사회에서 지배세력이 변천하는 현실을 투영하였다. 교회가 주도하던 중세에는 주로 교회기관으로 간주되어 도시, 군주, 교회에서 요구하는 학위자 수요를 만족시켰고 이후 점차 도시와 국가의 주도권이 커져가며 도시와 국가의 행정에 필요한 문인과 법률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분주했다. 오래전에 중앙집권적 전체정치를 실현했던 중국과 한국의 대학 역시 국가 관료를 배출하기 위해 무척이나 바빴던 것 같다. 공자가 왜 천하를 주유했을까? 진리를 찾아서일까 아니면 권력을 찾아서일까? 정치권력이나 종교권력의 손에 놓여있던 대학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장과 기업과 관계를 맺어간다. 특히, 신생국가인 덕분에 과거로부터 자유로웠던 미국은 공장제 대량생산 방식을 퍼뜨리던 미국 기업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며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팽창시켰다. 대학 역사의 긴 과정에서 대학의 원초적 DNA에 많은 가감이 이루어졌다. 학생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지식에 논리, 휴머니즘 그리고 과학과 공학이

더해졌다. 그 사이 대학은 추위를 피해 몇 차례 걸음을 바꿔 입었다. 한 때는 종교권력 또 한 때는 정치권력 그리고 지금은 시장과 기업이 그것이다.

기업과 시장을 닮아가는 대학

본론으로 들어가자. 현재 세계의 대학들은 시장과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은 돈이다. 현대적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시설과 연구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자금을 댔으니 과거의 교회나 군주들이 그랬듯이 이사회에 일정한 위치를 점하며 대학 운영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둘째는 학생이다. 시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필자처럼 기업 경험이 있는 자들이 교수진의 일부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기업이 만족할만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쓴다. 내친 김에 기업 맞춤형 교과과정도 개발해보고 취업 기법도 전수해 주려 한다. 셋째는 변신이다. 대학이 시장이나 기업으로 아예 바뀌는 것이다. 시장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계층적으로 조직화된 관료조직이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가 해체되어야 하고, 기업은 조직의 목적과 과정에 맞추지 못하거나 성과지표에 미달하면 머무를 수 없는 곳이다. 시장과 기업을 규율 하는 가격과 성과지표가 어느새 교수의 연구와 교육을 규율하고 있다. 지표가 미흡하면 관계는 종결되어야 한다. 주식 시장의 주가가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성에 못 차 직접 사업과 기업을 일으키려 하고 주위에서는 이를 부추긴다. 중세와 근대 초엽의 대학이 교회와 국가에 봉사했듯이 시장에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한가한 대학의 고민

삶을 알고 싶다면 죽음을 마주하라 했다. 대학을 알고 싶다면 대학이 사라지는 그 때를 그려보아야 한다. 내일

대학이 사라진다면 대학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이견이 있겠지만 대학이 처음 세워지며 DNA에 새겼던 바로 그 대학의 모습이 할 일에 포함될 것이다. 교회, 국가, 그리고 시장과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학이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이다. 사치스런 이야기이다.

한국 대학의 고민

한국의 대학 역시 시장과 기업에 봉사하고 기업을 닦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시장과 기업에 봉사하고 ‘한국의’ 기업을 닦으려 한다. 한국이 어떻길래? 현재의 한국 시장은 서구 산업화 초기의 대량생산 체제를 답습하고 있는 관료적 대기업이 지배하는 곳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서구의 대기업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대기업병에 개발도상국의 야수적 속성까지 더해져 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름 효율적이니 중소기업, 정부, 대학 모두 복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고민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입장이다.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조직에 목말라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기업은 대학을 닦으려 애쓰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아는 자가 조직 전체에 흠어져 있으니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학을 닦아가는 것이다. 이미 서구의 기업들에게는 오래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은 환골탈태에 애를 쓰는 ‘한국의’ 기업을 복제하려 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이 배울 대학은 한국에 없다.

한국 중소기업의 고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은 중소기업에 너무도 소홀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연구개발, 기술, 경영의 원천이 대학이다. 급한 김에 몇몇 기업을 대표 주자로 세우고 부지런히 달려온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이다. 대기업의 관료제는 양날의 칼이다. 추격에는 유효했으나 혁신에는 큰 짐이 된다. 혁신의 시대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대기업에

맡기기에 역부족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홀로 서려면 대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묵묵부답이다.

한국 경제의 고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제조업은 갖추었으나 그 많은 인재를 평생토록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제조업에 들어간 인재들조차도 배우질 않으니 나이만 먹으면 퇴물 취급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갈 곳도 없다. 그렇다고 직장이 다는 아니다. 국민의 연간 평균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인재들을 탓할 때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른 곳과 있다. 제조업 담 밖에서 인재들이 펼칠 행보가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현대적 교육체계에서 직장 문제는 고등학교 때 대체로 결정된다. 대학에서는 가지치기만을 할 뿐이다. 그런데 가지치기에 너무 열심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인재들이 직장과 제조업을 넘어서 펼칠 삶의 역정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사회에서 대학과 시장의 긴밀한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이 관계는 아니다. 기업이나 시장을 위해서도 인재들을 위해서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관계는 아니다. 대학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급한 김에 해왔던 이런 저런 일들을 털어내야 한다. 특히 관료적 대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제되고 있는 썩은 때를 털어내야 한다. 대학은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대학이 가르침을 받을 곳은 없다.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 내어 전파하는 것이 대학의 몫이다.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 모두가 대학을 바라보고 있다. 대학은 자신에게 새겨졌던 DNA를 다시 보아야 한다.



아주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ACE) 계획의 개요

교무처장 박영동

우리대학은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사업인 ‘학부교육선진화(ACE)사업’에 지원하여 연간 약2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ACE사업의 취지는 학부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소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우리대학의 ACE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바, 하나는 교육을 전반적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의 특징을 그 교육에 반영하여 우리의 고유한 향기를 담은 인재를 배출하여 개인과 사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대학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마련하였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교육 제도를 준비해 가는 것이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발전계획인 ‘아주비전 2023’에서 밝힌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이라는 비전과 ‘실사구시 인간존중 세계일가’ 라는 건학 이념에 바탕을 두어 인재상을 도출하였다. 우리들은 이 인재상을 조선의 대표적인 융복합 인재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상징하여 ‘茶山형 인재’라고 이름하였다.

ACE사업을 통해 우리대학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서 질 높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담보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전체 조감을 위해, 학생 선발부터 배출까지의 개략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제적 선진 사회는 극도의 내핍과 도에 넘치도록 치열한 경쟁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인 ‘극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졌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학 교육은 고도 단순 기술 숙련자 양성에서 한 차원 더 상승하여야 함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융복합 교육은 잘못하면 ‘근본’ 없는 교육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모든 교육 내용과 제도가 다 향상되어야겠지만, 특별히 기초를 쌓는 기초교육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초역량의 개발을 위한 글쓰기, 말하기, 고전, 외국어, 기초과학, 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다. 또한 교과와 연계된 학부 연구(URP), 현재 연구 중인 해외체험프로그램, 커리어 개발과 연계한 비교과활동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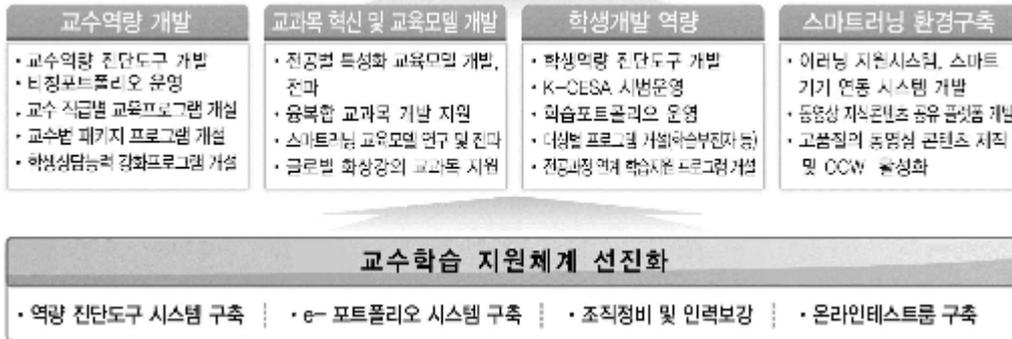
본 사업의 총괄 운영을 위해서 대학교육혁신원이 제도의 기획과 입안을 관장하며, 구성된 사업분과별 운영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교육 개선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모쪼록 교내 구성원, 특별히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게 되실 교수님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지속될 ACE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교육선진화사업 -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인문학부 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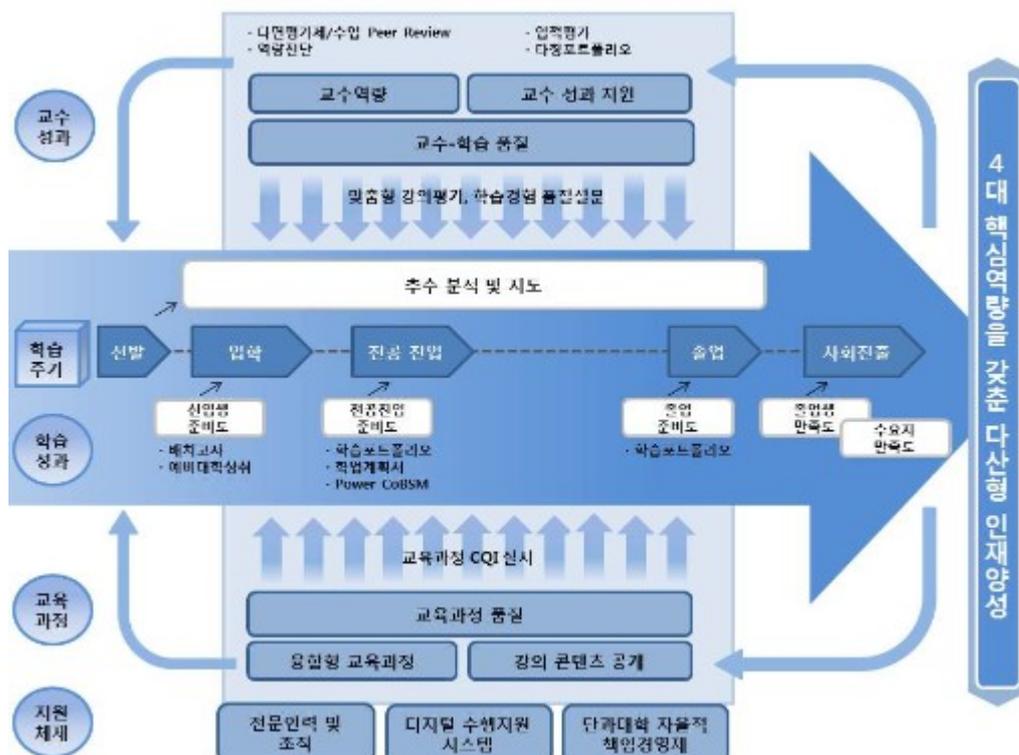
본교에서는 ACE사업의 7개 영역 중 두 개 영역, 즉 교수학습지원 및 교육질관리를 한 분과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사업은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역량개발,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학습역량 개발,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체계를 설정하였다.



교수학습지원 부분에서 1차년도 주요실적과 2차년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주요 사업실적	2차년도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역량진단도구 개발 ● 상담능력강화프로그램 운영 ●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e-칭/학습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스마트러닝 저작 도구 및 장비 구입 ● 온라인테스트룸 구축 ●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교수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 Peer Review 정책연구 ● e-칭/학습포트폴리오 시범운영 ● 학습성취 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지식공유콘텐츠 플랫폼 개발 ● 티칭스타일 진단시스템 개발

교육의 질관리는,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산출되는 교육적 성과의 점검 및 환류를 위한 품질관리 사업을 말하며,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학습성과관리, 교수성과관리, 교육과정 품질관리, 지속가능한 지원 체제를 주요사업 영역으로 설정했다. 관련 사업은 대학교육혁신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교육의 질관리 사업 1차년도와 2차년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주요 사업실적	2차년도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연구 ● 전공진입준비제도 연구 ● K-CESA 핵심역량 진단 ● 졸업생 및 졸업생수요자 만족도 조사 ● 맞춤형 강의평가 도구 개발 ● CQI 위원회 운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진입준비도 진단제도 시행 ● 학습부진자 동기유발 프로그램 ● Peer Review 포함 다면평가제도 시행 ● CQI 위원회 시범운영 ● 학습경험품질 설문 시범 운영 ● 교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ACE 사업 특집 **에이스 사업 전공 부문, 어떻게 진행되나?** 전자공학부 김상배

에이스 사업의 목표는 다산형 인재양성에 있다. 다산형 인재란 융복합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말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 부문에서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세부 사업은 융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산업 수요지향 교육과정과 교육의 확대, 학생 주도형으로의 수업방식 혁신,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그림 1은 에이스 사업 전공 부문의 전체 추진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에이스사업 전공부문 사업추진 체계

그림 1의 다양한 사업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융복합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학부생 연구의 체계적 지원과 추진, 학생주도형으로의 수업방식 혁신이다.

융복합교육과정은 이수학점에 따라 새로운 융복합 전공, 융복합 복수 전공, 융복합 부전공, 융복합 전공 트랙 등으로 분류하여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이 체제에 따라 2011학년도에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은 자동차-IT 융복합 트랙,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 감성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트랙 등 3 트랙이다. 이 외에도 몇몇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

에이스 사업 1차년도였던 2011학년도에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체제 구조 조정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졸업생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에이스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융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올해부터는 융복합교육위원회와 융복합교육센터가 융복합 교육 전반을 주재하도록 추진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전공부문에서 중점 추진하는 세부 사업의 또 하나의 중심축은 학부생 연구(undergraduate research)이다. 학부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융복합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을 두루 갖춘 다산형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다. 학부생 연구는 미국 대학에서의 오랜 운영 경험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 교육 방법으로, 최근에는 영국 등을 비롯한 세계 각 대학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 학부생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수동적 수강 중심의 교육을 학생 주도적 탐구로 교육 모드를 변환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논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이 배양되어 다산형 인재양성의 에이스 사업 목표달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차 년도에는 두 개의 학부생 모델을 개발하였다.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학부생 연구 모델을 화학 전공에서 개발하였고,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모델을 경영학부에서 개발하였다. 올해에는 거교적 확산의 첫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학부생 연구 홍보 → 연구 계획서 제출 → 심사 → 연구와 교육 진행 → 발표회 (UR Day) → 온라인 논문지 투고 → 논문 심사 → 게재 → 우수 논문 시상 등 체계적 진행과 지원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또, 학부생 연구 추진 주체로서 학부생연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부생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학부생 연구 참여 학생들을 선발하여 해외대학 단기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학부생 연구의 참뜻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을 통하여 실패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성공도 거두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공부문에서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문제기반 수업방식(Problem-Based Learning)의 전파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 교수들의 문제기반 수업 개발을 바로 곁에서 코칭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교육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축은 학생과 교수이다. 교육혁신의 출발점은 자기주도적으로 변모한 학생들과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진이다. 이를 위한 교육개선(학습능력 개발 등)과 제도 개선(교수 업적평가제도 개혁, 강의 개선에 주안점을 둔 강의평가 등)도 함께 진행된다.

에이스 사업은 우리 아주대학교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 에이스 사업을 통해 에이스 대학으로 도약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아주대학교 교양교육 - '茶山교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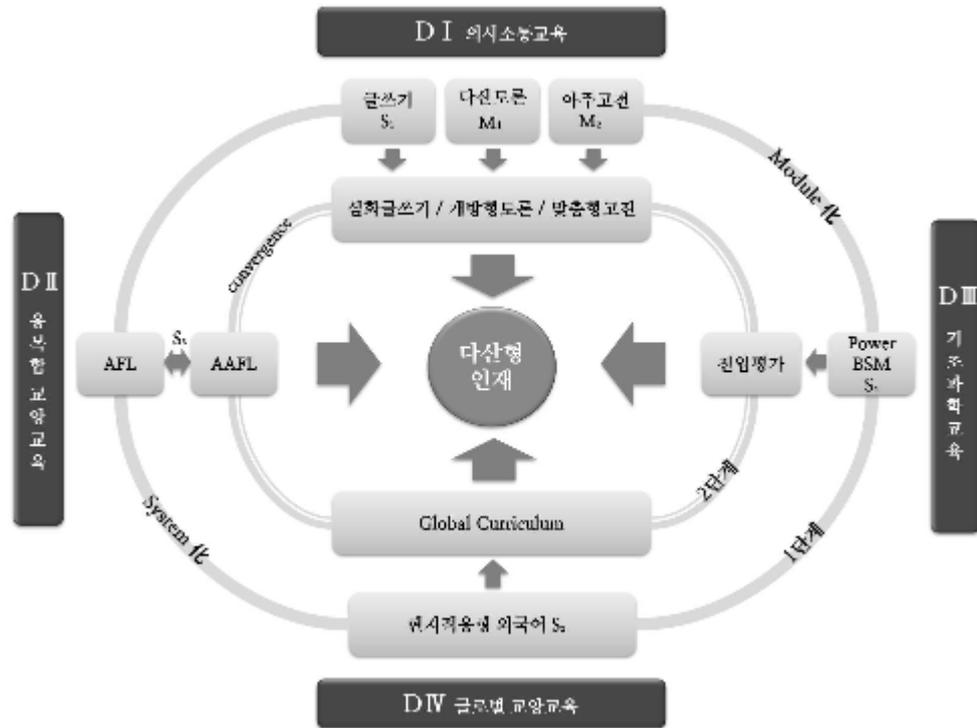
기초교육대학 송하석

1. 교양교육의 방향

20세기 중반이후까지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성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인식되어 전공교육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의미와 목표를 지닌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지식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졸업 이후의 삶의 개발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고교 졸업생의 80%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은 이미 오래 전에 취업교육의 땅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교육도 전공교육의 토대로서 도구적 지식의 습득이라는 기능과 여러 영역에서 제공하는 교양강의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수강하는 정도로 이해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은 前교육 혹은 副교육으로 간주되어 학교의 자원배분의 순위에서도 뒷전에 머

무르게 되고,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하향적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實事求是’를 건학이념으로 제창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교양교육의 핵심을 전공과의 연계 속에서 설계하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양인이 가져야 할 보편적 ‘성찰능력’을 내재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양교육이 육성할 인재상을 ‘茶山형 인재’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을 ‘다산교양교육’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2. 전공진입제도와 실천적 창의 역량 및 융복합 사고능력

이공계 전공의 비중이 높은 우리 학교에서 교양교육은 학문기초로서 높은 수준의 글쓰기와 영어 및 기초과학과 수학 과정을 1학년에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전공진입평가를 도입하였다.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도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학교는 2학기를 이수한 후 실시되는 전공진입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수업능력 배양은 물론, 전공적성여부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깊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목표로 제시한 ‘아주비전 2023’에서도 밝힌 바 있는, 창의적인 융복합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융복합 교양교육 체제를 기획하여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산교양교육’의 핵심이 되는 ‘AFL(Ajou Flagship Lecture)-AAFL(Advanced AFL)’ 교양교육 체제는 대형 입문강의로 학문에 대한 역사적 조감 및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AFL과 AAFL을 선수과목으로 갖고 있는 소형 심화강의인 AAFL은 주로 논문작성형 수업 혹은 토론형 수업, 고전집중형 수업으로 실시된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AFL과 AAFL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의 새로운 측면을 찾아 결합하는 적극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트랙화 한다는 것이다. 즉 AFL이나 AAFL 체제는 수강생들이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의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이 ‘AFL-AAFL’ 체제의 목표다.

3.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현대는 인터넷과 SNS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의사소통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제 대중은 수동적인 지식의 습득계층에서 적극적인 지식창출의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SNS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전세계에

순간적으로 전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교양교육도 현대사회의 의사소통구조를 반영하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식창출의 대중화로 인한 지식선별의 안목과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매개로 하는 간접대화에서의 윤리문제 등은 교양인의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인식으로부터 우리는 고전교육의 전면적 도입과, 대학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Ajou Debate를 개발 도입하였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고전교육의 필요성은 이들이 지식창출과정에서 일종의 검증된 배경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Ajou Debate는 지식선별 및 사실 확인, 비판적 사고, 예의 및 글쓰기 능력 모두를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장이며 이 들은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또 다른 기둥이다.

4. ACE 교양교육 분과의 2012년 사업 내용 및 특징

ACE 사업이 시작된 작년은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올해는 사업실행 및 정착 단계이다. 올해 AFL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AAFL 강의 개발과 융복합 교양트랙 등 교양교육 트랙화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 전반의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1학년 교육의 담당주체로서 기초교육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 또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Power Co), 전공 수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과학 및 수학 교육 프로그램(Power BSM) 지난해의 연구와 시범실시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캠퍼스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글로벌 교양트랙(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트랙)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산교양교육 프로그램은 목표역량 별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모듈화하고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우리의 교육 모델이 확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또 중소형 대학에 적합한 비용 대비 고효율의 교육모델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다.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초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기초교육대학의 부설 연구소로 <다산기초교육연구소>를 두어 교양교육에 대한 기획, 실행, 평가, 기록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양교육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가 학과제 모집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공진입평가제도의 엄격한 도입과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다산교양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기초교육대학에 학부대학의 기능 부여와 교양교육개선의 최대 난제인 적절한 자원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ACE 사업 특집

ACE 사업 비교과 영역 소개

건축학부 김장훈

비교과 영역이라 함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뜻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 교과목에 편성된 수업행위 이외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정규 교과 영역이 학생 각자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취업 및 현업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교과 영역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인격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다산(茶山)형 인재상은 정규 교과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한 행복감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질 수”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다산형 인재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함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과 행복감의 균형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을 달리 표현하면,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라는 양 날개를 사용하여 날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을 비롯하여 소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교과 영역이라는 날개가 행복을 추구하는 비교과 영역이라는 날개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나머지 이런 교육의 틀 속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삶에 있어 자신들의 목적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날아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스펙을 쌓기 위하여 제자리를 맴돌게 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ACE 사업에서는 먼저 우리대학의 비교과 영역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 다양성과 수월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는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다산형 인재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기르도록 자기주도형 진로 설정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 시스템 필요
-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동기부여 필요
- 단과대학별 자율경영의 취지는 살리되 산재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사전 심의, 조율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사후 평가하여 개선하게 하는 비교과 교육 과정 종합관리 체계 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ACE 사업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교과 영역 교육과의 균형 속에 펼쳐질, 비교과 영역 교육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 자기 주도적 필요역량설계,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능력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졸업 후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성 증진 및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을 융합·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아주대학교만의 독특한 해외봉사 프로젝트 개발 및 안착
- 비교과 교육과정의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자율성, 효율성, 지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 개선형 운영시스템의 확립

또한 이런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프로그램이 ACE 사업의 비교과 영역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 자기 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프로그램
-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프로그램
-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별 세부 사업은 열린 사업 선정 시스템에 의하여 선정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bottom-up 사업 선정 방식을 통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구성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며, 사업의 추진 중에도 참신성과 역동성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는 사회진출센터, 학생처, 대외협력처,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 여성 센터, 리더십개발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등의 부서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 별 세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구성원들 중 ACE 사업 비교과 영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 그 누구라도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의 비교과교육지원센터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히며, 정중히 초청하고자 한다. 비교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면 차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CE 사업 첫째인 2011학년도 비교과 영역 사업 실적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비교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지면이 모자라기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여 덜 중요하다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관 1층 남동쪽 코너에 비교과 Community Lounge를 개설하였다. 비교과 Community Lounge에는 자기표현 능력 강화를 연습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룸 3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토론 공간 1실,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모의 면접실 1실을 갖추어 있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들을 맞고 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소학회, 학부생 프로젝트 팀, 기타 비교과교육 활동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 융·복합사고 및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은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1차년도 사업의 개선 및 유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ACE 사업 두 번째 해인 2012학년도 비교과 영역 사업은 행복한 삶과 성공 체험 및 융·복합적 사고를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여러 전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이 Triz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를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발에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한 마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아주대학교만의 독특한 해외봉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융합된 개념의 사업으로 자신의 것을 활용하여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되, 학생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게 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도 동시에 체험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모두가 아는 대로 ACE 사업은 학부 교육 선진화 사업이다. 여기서 '선진화'라는 말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은 '경제'와 '시장' 그리고 이를 지탱하던 '무한경쟁'이 그동안 왜곡시킨 교육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을 대학답게, 대학생을 대학생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간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체험하고 꿈꾸며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미래를 품에 안고 이 캠퍼스를 떠나는 날을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교수들의 직업병①

상지부위의 문제

의학부 정형외과학교실 한정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들이 흔히 겪는 신체의 여러 문제 중에 상지(손, 손목, 팔꿈치, 어깨, 뒷목)에 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질환에 대하여 단순한 교과서적인 기술이 아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호소하신 부분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들은 전공 분야에 따라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및 진료실 등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 교수 업무의 대부분은 연구실에서 주로 PC를 이용한 문서 작업입니다. 장시간 책상에 앉은 자세로 손을 열심히 사용하여 강의 자료 및 논문 작성, 인터넷 서치, 이메일 작성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뒷목이 빠근하고, 어깨가 결리고, 팔꿈치가 아프고, 손목이나 손가락이 붓고 빠근하며 심한 경우 손끝이 저려오는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뒷목이 빠근하고 땡기면서 두통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거북목 증후군’이라 하며 장시간의 불편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뒷목근육 경직(muscle spasm), 목척추관절 압박, 목인대 긴장(strain) 등에 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수로서 활동하는 연령대는 인체의 많은 인대, 근육 조직의 부드러움이 조금씩 감소하는 때이므로 이러한 강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와 더불어 어깨도 습관적으로 한 자세로 고정하고 있게 되므로 어깨를 둘러싸는 관절낭(capsule), 회전근개 인대(rotator cuff)가 수축되고 굳어서 어깨를 크게 움직이려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는 평소에 일하는 동안의 잘못된 습관과 자세와 관련 있으며 연구실 밖에서의 생활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근육과 힘줄(tendon)의 과용(overuse)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작업을 하는 동안 손목, 팔꿈치의 일반적인 자세는, 팔꿈치는 굽히고 손목

은 약간 뒤로 젖힌 채 책상에 얹어놓고 손가락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며 키보드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팔의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고 팔꿈치의 바깥쪽 뼈 부위에 붙어 있는 힘줄에는 지속적인 긴장력이 가해져서 힘줄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조직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를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 부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개의 힘줄이 손목 터널 부근과 손가락 마디의 터널을 수없이 왕복하며 마찰을 일으켜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붓고 두꺼워지게 되면, 손목과 손가락이 뻣뻣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주먹이 잘 안쥐어지거나 손가락을 펼 때 통증을 느끼는 ‘건초염’(tenosynovitis)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팔꿈치와 손목을 딱딱한 책상에 대고 PC 작업을 오래하다 보면 손끝이 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정중신경, 팔꿈치에는 척골신경이 위치하는데, PC 작업 중에는 이 신경들이 책상과 맞닿는 부위에 놓이게 되어 압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손목에서는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팔꿈치에는 ‘주관절 척골 신경 압박증’(cubital tunnel syndrome)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에 언급한 질환의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어 근육, 힘줄 및 신경 조직의 염증성 또는 퇴행성 변화가 고착되면 소염제, 스테로이드제, 수술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하여도 그 결과가 매우 깔끔하지가 않으므로 평소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의 문제되는 자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책상에 앉아서 상체의 주요 관절들을 구부린 채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주요 신경부위를 딱딱한 책상에 눌러대고 있

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손과 팔에 게으름과 과로가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식생활로 예를 들면 편식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중에 가끔씩은 책상에서 벗어나 구부린 관절들을 활짝 펴야 합니다. 기지개를 힘껏 하고, 어깨관절을 크게 빙빙 돌려주고, 팔꿈치를 쭉 펴서 뒤로 젖히고 손목과 손가락 마디도 손등 쪽으로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목도 전후좌우로 젖혀 스트레칭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의 퇴행성 변화 및 강직을 예방하려면 주변의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력운동을 하면 연결된 힘줄내부의 콜라겐 섬유의 생성이 증가 하고 정렬이 좋아져서 탄력이 증가하므로 수동적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필히 시행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손가락에 건조염이 있을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손을 넣고 10-2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고 샤워 시 전신

온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틈틈이 러닝머신에서 팔다리 동작을 크게 하면서 빠른 걸음 운동을 하고 사우나, 찜질방을 다니며 전신 찜질도 하거나, 스포츠 마사지를 통하여 평소에 쓰지 않고 자고 있는 관절이나 힘줄 등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 교수로서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교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 해도 내 몸은 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다 편안한 상태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일정부분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수들의 직업병② 컴퓨터 시각 증후군 (computer vision syndrome) 의학부 안과학교실 안재홍

현대인들은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위해 컴퓨터에 매달리고, 밖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과 태플릿 PC를 꺼내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컴퓨터 화면에 노출되고 있다. 장기간 모니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비 특이적인 안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컴퓨터 시각 증후군(Computer vision syndrome: CVS) 이라 한다. 컴퓨터 사용자의 90%가 이러한 시각 증상을 경험해 봤다고 하며 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컴퓨터 화면에 노출될수록 CVS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한다.

I. CVS 의 증상

눈의 피로감, 눈이 건조하고 타는 듯하다, 안구 충혈, 흐릿하게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두통과 어깨 통증

II. CVS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는 눈은?

CVS는 비특이적인 안증상이 바탕이 되므로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CVS를 악화 시킬 수 있는 눈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 굴절 이상

컴퓨터 화면의 글자를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망막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쇄된 글자는 고정되어 있고 종이에 비해 강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기가 쉬우나 모니터의 글씨는 픽셀로 되어 있고 일정 주파수에 따라 점멸하고 있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모니터 화면의 글자에 오래 초점을 맞춘다면, 일상 생활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낮은 근시, 원시, 난시가 있더라도 CVS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2. 노안

가까운 물체에 대해 선명한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의 굴절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눈의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조절이라고 한다. 나이가 증가하면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거리를 보기 위해 굴절력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오랜 시간 근거리의 모니터를 보다가 먼 곳을 쳐다 볼 때 조절이 풀어지지 않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노안의 초기 증상으로 CVS의 증상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안이 생기면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책을 보는 거리 즉 30-40cm 거리를 기준으로 돋보기를 착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컴퓨터 모니터의 거리는 50-100cm 이므로 컴퓨터 작업을 시행할 때 근거리용 돋보기를 착용하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론 원거리 용도의 안경 역시 비슷한 원리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3. 안구 편위

근거리 작업을 시행할 시에는 조절 반응과 함께 눈모음 운동도 일어나는데 이는 복시를 피하고 양안 단일시를 얻고자 함이다. 만약 사위 또는 눈모음 이상과 같은 안구 편위가 있다면 일상 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을 지라도 장시간 동안 상을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눈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힘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시 복시를 느낄 수도 있다. 컴퓨터 작업과 같은 근거리 작업을 장시간 할 때 그 피로감은 더욱 심할 수 있다.

4. 건성안

건성안은 CVS 발생의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CVS 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건성안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 눈깜빡임의 감소로 인해 눈물층의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건성안이 악화될 수 있고, 냉, 난방기의 사용 등 상대적으로 건조한 사무실 환경이 이 같은 증상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III.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1.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인공 누액의 적절한 사용과 안검염의 적절한 치료는 건성안의 증상을 줄여줄 수 있으며 모니터를 볼 때 눈깜빡임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2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시행 시 15분 정도 눈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휴식을 취할 때는 먼 곳을 주시하여 근거리를 보기 위해 긴장되었던 눈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절한 사무실 습도의 유지 및 냉, 난방기의 방향의 조정으로 건조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정확한 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또한 노안이 있다면 근거리 용도가 아닌, 중간 거리의 사물을 명확히 보이도록 교정하는 안경(Half Glasses)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4. 눈모음 이상과 안구편위가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5. 인쇄물 < 전자잉크 < 모니터 순으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므로 장시간 독서를 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일 필요하다.

소식

I. 2012년 전체 교수회 정기 총회 개최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30분에 을곡관 대강당에서 2012년 전체 교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연구년, 출장 등을 제외한 재직인원 574명 중 177명 참석, 197명 위임으로 성회되었다. 총회에서는 먼저, 2월 29일 제정한 ‘아주대학교 교수윤리강령’ 선포식을 거행하였으며, 이는 한국대학신문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선포식에 이어 교수회 사업 보고 및 평의회회 보고가 있었고, 연구년(3년6개월 복원)위원회의 보고서와 박종구 전 교수 특별채용 불법성 여부 조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으며, 그 밖에 교권 침해 청원권 보고, 불법펀드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감사보고가 행해졌다. 의결 사항으로는 총장 중간 평가 건과 이사장 해임 건의 청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II.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 개최

교수회에서는 4월 3일 오후 4:30분에 2011년 2학기, 2012년 1학기 신입 교원들과 교수회 임원들이 함께 신입 교원 환영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 온 교수들에게 교수회를 알리고, 상호인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III. 펀드 불법투자 조사 위원회 구성

펀드 불법투자 조사 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드디어 구성되었다. 위원은 교수회 추천 2인(자연과학부 이순일 교수, 황효진 회계사)과 본부 추천 2인(법학전문대학원 민경도 교수, 경영학부 한봉희 교수)이 맡았으며, 현재 위원장 선출 및 향후 활동 방식 등을 논의 중에 있다.

IV. 총회 후속 조치

교수회에서는 3월 14일 총회에서 결의한 총장 중간평가 건, 이사장 해임 건의 청원 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총장 중간평가 준비 및 방안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교수회에서 본교 이사회 이사들에게 이사장 해임 촉구 청원서를 발송 완료하였다. 또한, 3년6개월 연구년 복원을 위한 연구년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총장 및 교무처장에게 제출을 완료하였다.

V. 대학평의원의 소식: 개방이사 선임

2월 17일 재단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마무리 되어 신상협 교수(아주대 대학평의회 추천), 최홍 1기 개방이사(아주자동차대학 평의회 추천), 박상일 1기 개방이사(재단 추천)가 임기 4년의 2기 개방이사로 선임되었다.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주체, 즉 아주대 대학평의회와 아주자동차대학 평의회, 그리고 재단이 한 명씩 균분한 모양새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홍, 박상일 이사는 4년 전 재단에서 추천하여 개방이사가 된 분들로, 이번에는 자동차대학이 최홍 이사를 대리 추천했다고 볼 수 있다. 신상협 교수는 아주대학교 동문으로 이제는 동문이 이사회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사실상 공동 추천 후보였다.

이번 개방이사 추천 과정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아주대학교 평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재단이 일방적으로 정관에 정한 추천위원회 구성비, 즉 아주대학교평의회 2인, 아주자동차대학교평의회 1인, 재단 2인의 비에 대해 수정 시도를 하였다. 정관 개정 이전에 각 주체간에 협의하도록 한 상위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규모에 있어 수십대 일이 되는 아주대와 아주자동차대 측의 추천위원비를 2대 1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의 정관이 문제점은 있으나 적법하게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고, 추천위원 구성비를 변경하자는 요구에 아주자동차대학 평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천 위원회는 아주대학교 평의회에서 추천한 김준한, 이재호 교수,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추천한 김정순 교수, 재단에서 추천한 이영현 이사, 임홍식 팀장 등 5인으로 구성되었다. 관례에 따라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김준한 위원이 의장을 맡아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6인의 개방이사후보를 추천하였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나 추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별로 2인의 후보를 토론과 투표에 의해 선정하여 추천하였고 추천된 각 분야 2인중 1인을 선임해 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하였다. 첫째로 의료분야에서 대학평의회 추천후보 2인을, 둘째로 대학 및 동문관련 분야에서 평의회 추천후보 1인과 신상협 교수를, 끝으로 기업 및 법조 등 학교운영관련 분야에서 최홍, 박상일 후보를 추천하였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고 분야별 선임 대신 총 6인의 후보중 3인을 선임하였고 결과적으로 아주대학교 평의회 단독 추천후보는 한 명도 개방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가 재단 이사회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나 재단 추천위원도 참여한 추천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태이며 동시에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아주대학교평의회를 경시한 처사임은 분명해 보인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공존의 조건들

인문학부 김태승

선거의 계절이 왔다. 선거는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축제다. 특히 ‘말의 축제’다. 선거 때가 되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말들이 세상을 뒤덮는다. 각 정파는 정파들대로,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들대로, 미디어는 미디어들대로 자신들의 희망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한다. 이러한 ‘말의 축제’는 각 종 미디어에서 주관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말의 축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소음의 공해’로 여겨지기도 한다.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말의 축제’는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거나,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로 기능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토론 참가자들의 ‘불통’을 확인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생겨나는 것이다.

토론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살아 나가야만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참가자들이 공유해야 한다. 토론은 그리고 소통은 그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하고는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점이 성찰되지 않는다.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갑옷을 두르고 무기를 치켜들고 전의를 불태운다. 그래서 토론은 말의 축제를 함께 즐기는 무대가 아니라 말의 전쟁터가 된다. 토론의 참가자들만이 아니라 토론의 관전자들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혼잣말을 끊임없이 쏟아 내면서도 자신은 대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편견과 조작된 진실조차도 사실상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면서 유통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를 ‘동문서답형의 탈맥락화된 언설’들이 뒤덮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없는 혹은 그럴 능력이 없는 권력엘리트들은 진영논리를 동원하여

거리낌 없이 국가의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토론은 자신들의 허위의식을 만족시키는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오직 누구 편에 속하는 가이다.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지방에서 활동했던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연계의 물질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주의 모든 원리는 숫자(오직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로 하여금 숫자를 신성한 그 무엇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4는 지상의 완전수이고 6은 결혼의 수인데 그것은 여성의 수인 2에 남성의 수 3을 곱한 값이기 때문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러한 신념에 장애가 되었다. 빗변을 제외한 각각의 변이 1이라면 빗변은 무리수 $\sqrt{2}$ 가 되어 세상의 숫자는 자연수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감추고 심지어는 외부에 발설한 동료들을 살인하기까지 이르렀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진실과 관계없이 집단(진영)논리에서 사물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현실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집단에서 제거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문건에 나타난 ‘좌파 연예인’등의 표현이 함축하는 바는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만든다. 조금만 자기와 생각이 혹은 행동이 다르면, 바로 ‘적의 진영’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되고,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2천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영논리에 함몰된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소통을 말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진정한 삶의 맥락 속에서 소통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